코사투(COSATU) 제6차 전국총회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위원

한국의 민주노총(KCTU), 브라질의 통일노동자연맹(CUT)과 더불어 제3세계 노동운동의 선두주자로 전세계적인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 이하 코사투)의 제6차 전국총회가 지난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 동안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렸다.

1994년 남아프리카의 민주화 이후 3년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고 1999년 총선거와 21세기에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자리였던 이번 총회는 솔직하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 3박4일이라는 부족한 시간, 2천명에 달하는 엄청난 참가자, 세계화와 사회주의를 아우르는 폭넓은 만건, 대통령의 참석과 축하연설 등 내용과 규모에서 한국노동운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글은 코사투의 기관지인 『The Shopsteward』(1997년 10/11월호)와 제6차 전국총회에 제출된 『활동보고서』(1997년, 코사투 사무총국)를 정리한 것이다.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총회

이번 총회는 총선거에서 아프리카민족회의(이하 ANC)가 승리하고 만델라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남아프리카 역사상 최초로 민주주의 정부가 등장한 1994년에 열린 제5차 총회 이후 3년 만에 처음 열리는 총회였다. 6차 총회는 지난 3년 동안의 민주주의 변혁과정을 평가하고 남아프리카의 21세기를 결정할 차기 총선거를 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열렸다. 제6차 총회를 맞이하면서 코사투는 남아프리카 노동조합운동을 둘러싼 새로운 도전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코사투를 강력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만드는 것, (2) 노동자에게 우호적인 거시경제의 틀을 건설하는 것, (3) 여당인 ANC와 남아프리카공산당(SACP) 그리고 코사투 사이의 삼각동맹을 강화하는 것.

코사투는 이번 총회에서 이상의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남아프리카의 민주변혁(democratic trnsformation)에서 강력한 중심세력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제6차 총회의 주제는 '사회변혁(social transformation)의 방어와 공고화 그리고 전진'이었다.

□ 사회변혁(social transformation)

1994년 총선거에서 ANC정부가 승리함으로써 남아프리카는 민주주의로의 이행기에 돌입했다. 1994년 총선거는 아프리카민족회의(ANC)-남아프리카공산당(SACP)-코사투(COSATU)의 삼자동맹에 기반한 '민중민주주의'(people's democracy)의 승리였고, 이런 의미에서 ANC정부는 민중권력 정부라 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는 총선거를 통해 인종차별정책과 독재권력을 분쇄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혁명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곳곳에 남아있는 과거의 유산을 철저하게 청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구체제의 기득권층은 아직도 민주주의를 전복시킬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사투는 친노동자적인 정부를 지원하면서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고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도모하기 위해 더욱 앞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현 정부를 지원하면서 남아프리카 사회를 더욱 민주화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코사투의 당면 목표는 혁명(revolution)이 아니라 변혁(transformation)이며, 남아프리카 사회가 여전히 궁극적인 목표(진정한 민주주의와 완전한 평등)가 완전하게 달성하지 못했고 '과거의 유산'이 남아있는 사회라는 측면에서 코사투의 당면 목표는 개량(reform)이 아니라 변혁(transformation)이다.

총회일정과 집행부 선출

첫째날인 9월 16일 참가자 모두가 남아프리카 민중가요와 인터내셔날가를 부름으로써 코사투 제6차 총회가 시작되었다. 코사투 사무차장 바비(Z. Vavi)가 성원보고를 했고 대의원들은 총회안건과 제5차 총회 의사록을 채택했다. 이어 코사투 위원장인 고모모(P.J. Gomomo)가 개회연설을 한 다음, 국제국장 시핑고(B. Sifingo)가 내빈을 소개했다. 코사투 사무총장

쉴로와(M. Shilowa)가 세계 각국에서 온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낭독한 다음,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자 ANC 의장인 만델라(N.R. Mandela)가 축하연설을 했다. 점심식사 후 쉴로와 사무총장이 사무국 활동을, 부위원장 셉템버(C. September)가 셉템버위원회 활동을 보고했다. 그리고 국제연대 사업문제를 다룬 다음 국제연대결의문을 채택하고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둘째날인 9월 17일은 스웨덴 노총(LO) 위원장인 얀손(B. Jonsson)의 연설로 시작되었다. 오전에 대의원들은 조직사업 보고를 듣고 조직강화결의문을 채택했고, 오후에 재정보고를 듣고 재정확대결의문과 규약개정 결의문을 채택했다.

셋째날인 9월 18일 오전에 남아프리카 공산당(SACP) 임시의장 은지만데(B. Nzimande)가 연설했고, 대의원들은 정치활동 보고를 듣고 정치 결의문을 채택했다. 오후에는 사회경제 활동 보고를 듣고 사회경제 결의문을 채택했다.

마지막날 9월 19일 대의원들은 새 집행부를 선출했다. 선거 결과 고모모 현위원장(금속노조 폭스바겐공장 현장위원)이 재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셉템버 현부위원장(의류섬유노조 텍스트루폼공장 현장위원)과 말레페(P. Malepe, 식품노조 프레미어밀링공장 현장위원)가, 사무총장에는 쉴로와 현사무총장(운수일반노조 간부)이, 사무차장에는 바비 현사무차장(광원노조 조직활동가)이 당선되었다.

정치동맹 문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삼자동맹이 갖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아프리카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동맹의 분열에 대한 끊임없는 언론공세에도 불구하고 삼자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안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정치동맹을 강화하고 정치동맹을 위한 분명한 전략이 있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 대의원들이 동의했다. 일년 전 정부의 일방적인 GEAR 도입으로 동맹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었지만, 사회 변동에 있어 동맹의 전략적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쟁점이 되지 못했다.

□ GEAR

GEAR는 성장 · 고용 · 재분배 (Growth Employment And Redistribution)의 영어약자로 1996년 6월 ANC정부가 내놓은 사회경제정책이다. GEAR는 삼자동맹은 물론 ANC당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무부장관이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정부와 ANC 당조직 그리고 삼자동맹에 참가하고 있는 코사투와 남아프리카공산당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코사투와 SACP는 GEAR가 노동계급과 민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해 있다고 비난하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삼자동맹의 약점 즉, 집권과 사회변동 과정에 대한 공동 프로그램의 부재와 동맹내 책임성과 조정의 부재가 존재하고 그것이 총회에서 강조되었다. 이미

이 문제는 코사투 내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코사투 집행위원회에 의해 다뤄진 바 있다. 게다가 지난 4월이래 삼자동맹의 최고위급 회담은 사회변혁을 추진하기 위한 공통의 접근법을 위한 토대를 놓기 시작했다. 총회는 최근의 동맹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 결의는 민주세력에게 유리하도록 권력의 균형 상태를 움직이고 1999년 선거승리를 준비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물론 총회는 삼자동맹을 위한 코사투의 헌신이 코사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정력적으로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치동맹의 파트너들은 가차없이 그러나 건설적으로 서로를 비판해야 한다"고 총회는 결의했다.

제6차 전국총회에서 선출된 코사투 집행부는 2천명의 참가자들 앞에서 선언했다. "우리는 1994년의 약진을 지켜내고 민주주의와 사회변혁 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해 조합원들과 광범위한 노동계급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999년 총선에서 ANC의 결정적인 승리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정치동맹과 대중운동의 외곽에 있으면서 이번 총회가 반(反)ANC 집회가 되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코사투를 정치동맹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민족민주혁명과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복무시키려는 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우리가 실용주의와 현실주의라는 미명하에 '신전서'에 순응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라고 시무총장 쉴로와는 말했다. 총회는 코사투가 삼자동맹의 강화를 위해 헌신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우리 모두는 동맹의 성공이 ANC와 남아프리카공산당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코사투 조합원들과 노동계급에게 달려 있다는데 동의합니다"라고 지도부는 천명했다.

ANC 정부와의 관계

근본적인 사회 변동의 장애물들 가운데 하나는 ANC와 삼자동맹이 정책 수립과 실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사무국 보고서는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경제, 주택, 교통 등의 영역에서 정책수립이 테크노크라트와 관료집단 그리고 장관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고 꼬집었다. 사무국 보고서는 "ANC와 동맹은 정책개발을 주도하기보다는 떠오른 정책을 처리하는데 급급했으며, 그 결과 우리는 자주 RDP에 역행하는 정책들에 반대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GEAR의 도입이라고 밝히고 있다.

□ 재건발전강령(RDP)

RDP는 재건발전강령(Reconstruction & Development Programme)의 영어약자이다. 1993년 ANC는 다음해 선거를 앞두고 노동조합운동의 지지를 얻기 위해 금속노조(NUMSA)가 제안한 '재건합의'(Reconstruction Accord)을 수정하여 RDP를 내놓았다. ANC는 선거용으로 RDP를

고용조건 기본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삼자동맹회의. 중앙이 만델라 그 왼쪽이 고모모 위원장.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원래 내용은 상당부분 수정되었다. RDP의 수정안은 1993년 8월에 열린 코사투 특별총회에서 강력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곧 코사투가 수용함으로써 RDP는 새 정부의 정책적 지침이 되었다.(출전: 월레드론회: 전환기 남아공의 노동운동」, 「노동사회 9/10월호」)

만델라 대통령은 GEAR를 발표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총회연설에서 인정했다. 그는 ANC도 GEAR 계획이 완성된 다음에야 GEAR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총회는 "ANC 정부가 ANC 당의 정치적 통제 아래 있고 삼자동맹에서 합의한 정책들에 의해 지도되기 위해서" 삼자동맹이 재조직되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 결과 '고용조건기본법(Basic Conditions of Employment Bill,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편집자)' 같은 쟁점들에 대한 코사투의 참여가 힘을 얻게 되었다. 코사투는 삼자동맹 내에서 고용조건법에 대한 합의를 추진해 왔으며 ANC 소속 국회의원들의 동의 하에 의회가 받아들일만한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코사투와 정부의 관계는 노동계급의 이익증진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총회는 결의했다. "이것은 우리가 정부의 진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계 진출자의 책임성 문제도 코사투의 큰 관심거리였다. 지난 선거에서 ANC 소속으로 국회선거와 지방의회선거에 참여한 코사투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사무국 보고서는 그들이 동질적이지 않다고 보고했다. "그들 중 몇몇은 코사투와 힘있게 협력하면서 친노동자적인 입장을 유지해 온 반면, 몇몇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 동시에 코사투와 전혀 상관없었던 ANC 소속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주었다. 따라서 우리는 협소하게 이 문제를 다루지 말아야 한다"라고 보

고서는 밝혔다.

이런 입장에 발맞추어 총회는 코사투가 다음 과제를 수행할 것을 결의했다. 첫째, 노동자계급의 강령을 지지하는 정부와 의회내 세력들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둘째, 장관들과 다른 선출된 대표자들이 엘리트 중심의 의제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 조직 곳곳에 ANC의 조직적 권위를 강화한다. 셋째, 정당비례투표제와 선거구중심투표제를 절합시키는 운동을 전개한다. 이것은 정부가 노동계급과 빈민들을 보다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할 것이다. 넷째, 전국차원과 주차원에서 의회활동을 이해하고 영향을 미칠수 있게 하기 위해 근로민중을 교육하고 단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동자 의회'를 위한 요구를 중앙집행위원회가 고려해야 한다. 첫 전국노동자의회는 1998년 노동절(May Day) 때 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가로 코사투와 산하 조직들은 자신들의 중앙 · 지방 · 지역의 의회활동을 통합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NEDLAC은 투쟁의 장이며 민주주의의 진전과 사회 · 경제의 변동 과정에서 조직된 노동(organized labour)이 중심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뜻하기 때문에 NEDLAC을 방어해야 한다고 총회는 결의했다.

□ NEDLAC

NEDLAC은 국가경제개발노동위원회(Nacional Economic Development & Labour Council)의 영어약자이다. NEDLAC은 1995년 2월 18일 정식 출범했으며, 전통적인 노사정 삼자협의 기구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지역대표와 시민단체 등 다른 이해집단들의 참가도 보장하는 법국민 기구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 핵심은 여전히 노동계와 재계 그리고 정부가 담당한다. NEDLAC의 골간은 노동시장 · 무역/산업 · 공공재정/통화정책 · 개발사업 등 4개 부문으로 나눠진 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1년에 한번 개최되는 총회에는 각 집단을 대표하는 3백명의 대표가 참여한다. 주요한 사회경제 정책들은 정부나 의회에서 다루어지기 전에 이 위원회에서 사전조율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치적으로 볼 때, 만델라 정부는 ANC와 코사투 그리고 남아프리카공산당(SACP)의 삼자동맹을 기초로 NEDLAC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행기의 정책들을 둘러싼 재계(백인)와 노동계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조율하는 완충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출전: '남아공노동운동 어디로 갈 것인가', 『노동사회연구 제8호』, 1996.7)

"NEDLAC은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특히 사회경제적 쟁점들의 입안과정에 개입하려는 우리의 투쟁과정에서 태어났다"고 사무국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총회는 "NEDLAC의 구성과 특징은 그것이 투쟁의 장에서 많은 모순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할 기관이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총회는 NEDLAC이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위치에 서면 안되며 NEDLAC에서의 협상은 의회의 입법권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의회는 삼자기구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총회는 "의회와 NEDLAC의 역동적이고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코사투 의회위원회(parliamentary committee)는 의회의

사정을 충분히 알아야 하며 의회의 모든 활동에 공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총회는 지방과 지역 차원에서 NEDLAC의 진행과정에 참여하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고위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할 권한을 코사투에 위임했다.

사회주의 문제

총회는 사회주의를 위한 코사투의 흔들림없는 헌신을 재확인하고 "지금 바로 사회주의 건설을 시작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했다.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가와 국민당(Natioanl Party)이 통치하는 자본주의였습니다"라고 쉴로와 사무총장은 강조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실패에 대해 가차없이 비판하려 합니다. 그리고 SACP와 ANC 내의 지지자들과 더불어 사회주의를 향한 우리의 전망을 제시하는 공공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입니다"라고 지도부는 선언했다.

총회 참가자들은 코사투가 정치적 동반자인 SACP에 대해 말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코사투 산하 조직들이 매월 당비를 내야 하며 당의 현장조직을 만드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교사노조(SADTU)의 한 대의원은 "더이상 말산치는 필요없으며 지금 당장 당을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외쳤다. 광원노조(NUM)의 한 대의원은 덧붙였다. "우리는 혁명적인 노동계급의 당으로서 SACP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신합니다." 식품노조(FAWU) 대의원은 SACP의 현장조직을 강화하는 사업이 노동계급의 의식과 사상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문에서 코사투는 사회주의를 위한 헌신을 현실적이고 이해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바꾸어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것이 쉬운 과업은 아니지만, 사회주의를 향한 우리의 헌신은 흔들림이 없다"고 천명했다. 남아프리카가 민주주의 국가인 것은 분명하지만 경제권력은 여전히 소수의 손에 있으며 전략상 노동계급의 주적은 국내외의 독점자본임을 분명히 했다. "코사투는 사회주의 사회를 향한 장기적인 비전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다수의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자본의 활동에 개입하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결의문은 밝히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를 위한 블록"을 뜻하는 것이며, 사회주의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총회 참가자들은 사회주의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코사투가 사회주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할 노동계급을 교육하고 동원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뿐만 아니라 총회는 코사투와 SACP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심어주고 국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넓히며 사회주의를 둘러싼 지적 논쟁을 전파할" 대중매체(mass media)를 개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전세계적인 전선에서 자본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의 신뢰할만한 사회주의 조직들"과 연결망을 구축할 것을 결의했다.

세계화 문제

세계화의 본질과 형태에 관한 논쟁은 총회에 참가자들이 격론을 벌인 논란거리였다.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광범위하게 끼치는 세계화가 불가피하고 바람직한 과정이냐는 논란에서부터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의 확장이며 제국주의의 최신 형태라는 주장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의류섬유노조(SACTWU)는 세계화의 특징으로 가속화되는 판세인하, 환율관리의 자유화, 주요기업의 민영화, 다국적·초국적 기업들과 국제통화기구(IMF)·세계은행·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국제기구들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 증대 등을 언급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정책들의 부정적 결과가 고용불안의 증대, 노동시장의 탈규제,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의 축소와 접근기회 봉쇄, 고용·근로조건의 악화, 사회보장비용의 삭감 등으로 나타난다데 인식을 같이 했다. 1994년 제5차 코사투 전국총회 결의문을 언급하면서 식품노조(FAWU)는 코사투가 세계화의 현재 형태를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세계화의 파국적인 결과에 반대합니다. 물론 모든 세계화가 파국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 관점은 코사투의 사무총장 쉴로와도 공유하는 것이었다. "저는 코사투가 무조건 세계화를 반대한다고 말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코사투가 세계화를 반대했다고 이해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1994년 총회를 잘못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세계화하는 것입니다"라고 쉴로와는 말했다.

광원노조(NUM)의 사무차장 망타세는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의 공세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우리가 공존할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화에 저항하는 대응방안을 개발해야 합니다. 대안들(alternatives)을 모색하는 것은 올바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의류섬유노조(SACTWU)의 피텔은 광원노조(NUM)의 의견에 동의하며 세계화는 투쟁의 장이자 참여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텔은 고립경제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우리는 다른 나라에 우리의 광물을 수출하기를 원하고 남아프리카로 기계류를 수입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화를 위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화의 성격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다고 간단하게 결의할 수 없습니다." 피텔은 세계화가 노동자들이 국제적인 현장조직과 국경을 초월한 연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동운동은 이러한 기회를 틀어쥐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화를 반대하는 것은 노동자를 위한 현실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광원노조(NUM)와 운수일

반노조(TGWU)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우리는 지구촌에 있습니다. 세계화는 국제무역과 투자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부 아프리카 지역이 국제시장에서 보다 공정한 몫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국적자본과 초국적 자본이 투자하는 곳에서 노동자들은 수출자유지역의 등장을 막아야 하며, 자본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하며,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는 형태의 세계화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파벨은 말했다.

자치단체노조(SAMWU)는 운수일반노조(TGWU)와 식품노조(FAWU)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것을 이설프게 다룬다면 세계화는 제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면 우리는 세계화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라고 자치단체노조(SAMWU)의 사무총장 로니가 말했다.

쉘로와는 국제노동운동이 사회현장과 더불어 노동자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을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국제기구들과 초국적자본과 다국적자본이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노동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몇 경우 제한적으로 참가하고 또 몇몇 경우는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그는 노동운동의 국제연대가 더 이상 해외언수나 회의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화학노조(CWIU)는 코사투 국제활동의 상당부분이 지금까지 '의례적'이거나 상징적이었다고 느껴왔다. 쉘로와는 코사투가 국제적 차원에서 현실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와질랜드를 보십시오. 역사상 처음으로 그 나라의 국경은 우리 노동자들의 행동으로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교육보건노조(NEHAWU)는 코사투가 국제노동운동의 변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지 않는다면 세계화의 결과에 대응하는 노동자들의 노력이 타협으로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운수일반노조(TGWU)는 총회가 최소한의 국제실천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프로그램은 모든 국제노동운동을 단결시킬 수 있는 폭넓은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국제자유노동조합총연맹(ICFTU)은 중요합니다"라고 운수일반노조(TGWU)의 사무총장 하워드가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코사투는 2단계 계획에 합의했다. 1단계는 코사투가 노동절에 최고조에 달할 국제적인 세계화 강조 주간(週間)에 참가하는 것이다. 2단계는 정상근로시간, 파업 시위 피켓팅 휴업 동맹파업을 위한 국제 실천의 날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의 목적은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노동자들의 반대를 집중하면서 세계화의 대안을 내세우자는 것이다. 식품노조(FAWU)는 국제자유노

동조합총연맹(ICFTU) 산하 국제단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산하 조직들은 당장 동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는 또한 세계적인 연대기금을 설치하자는 의류섬유노조(SACTWU)와 자치단체노조(SAMWU)의 제안을 승인했다.

1994년 제5차 총회 이후 가입한 조직

가입조직	가입일	조합원수
은행사무원협회(SASBO)	1995.3	75,000
경찰교정공무원노조(POPCRU)	1995.9	40,600
농업일반노조(SAAPAWU)	1995.2	24,000
공무원협회	1995.7	15,000
공무원협회(IPS)	1995.10	11,000
통신노조(CWU)	1996.5	40,000

1991년-1997년 조직증가 현황

노조	1991	1994	1997	1994 비율 변화
건설노조CAWU	30,123	25,481	31,606	24%
통신노조CWU	21,467	23,081	40,000	73%
화학노조CWU	45,147	41,482	45,000	9%
식품노조FAWU	129,480	121,435	139,810	15%
교육보건노조NEHAWU	18,110	63,835	162,530	155%
광원노조NUM	269,622	310,596	310,596	0%
금속노조NUMSA	273,241	169,598	220,000	30%
출판인쇄목재노조PPWAWU	42,962	36,630	49,422	35%
경찰교정공무원노조POPCRU	-	-	44,999	
농업일반노조SAAPAWU	-	-	29,000	
상업조리일반노조SACCAWU	96,628	102,234	102,234	0%
의류섬유노조SACTWU	185,740	150,078	150,000	0%
민주교사노조SADTU	-	59,427	146,000	146%
가사노조SADWU*	15,462	25,149	-	-100%
자치단체노조SAMWU	60,304	100,408	116,524	16%
공무원협회SAPSA	-	-	14,318	
철도항공노조SARHWU	35,243	35,398	63,989	40%
은행사무원협회SASBO	-	-	23,377	
운수일반노조TGWU	33,324	38,482	53,989	40%
전체	1,258,853	1,303,272	1,763,555	35%

* 남아프리카가사노조(SADWU)는 1996년 9월 7일부터 8일까지 열린 전국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했다. 노조는 가사노동자들을 남아프리카상업조리일반노조(SACCWAU)와 운수일반노조(TGWU)에 통합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가사노동자들을 받아들일 여건이 되지 못하다는 이유로 TGWU와 SACCWAU에 의해 거부되었다. 코사투 중앙집행위원회는 가사노동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부문별 조합원수 변화 추이

부문	1994	1997
공공부문	223,669	484,371
제조업	519,203	604,232
서비스 부문	224,344	303,750
1차산업	336,057	371,202
총계	1,303,273	1,763,555

조직강화 문제

조직문제는 총회에서 최우선으로 다뤄졌다. 1985년 코사투가 창설된 이래 조직체계가 별로 변한 것이 없었다. 조직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오간 것은 코사투가 조직개편이 필요할 만큼 성숙해졌고 새로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가장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던 쟁점은 지도부 구성의 여성할당제 문제, 노조의

조직범위 조정문제, 단체협상의 새로운 틀을 건설하는 문제, 코사투 규약이 코사투와 산하조직의 선출직 상근간부들(elected office-bearers)을 임원(officials)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광원노조(NUM)의 제안 등이었다. 단체협상의 틀과 여성할당제 문제를 제외한 쟁점들은 거의 합의되었다.

조직범위 문제는 코사투 산하조직의 오랜 두통거리였다. 오랜 논쟁 끝에 총회는 원칙적으로 사무국 보고서에 설린대로 코사투 내에 광범위하게 규정된 핵심부문들을 설립하는데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산하 조직간의 통폐합에 따른 '거대 노조' (super union)의 출현이 가지는 의미를 연구하고 차기 총회 전에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위임받았다.

코사투의 구조와 역량(산별노조, 지방본부, 지부를 포함하여)을 강화할 필요성은 사무국 보고서와 셉템버위원회 보고서의 핵심주제였다. 사무국 보고서는 코사투가 수적으로는 강화되었지만 명백한 약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산하 조직들간의 불균등한 발전, 지도부와 기층 조합원과의 격차, 노동자 출신 간부들의 조직구조 참가 부족, 몇몇 산하 조직의 행편없는 활동, 산하 조직간 경쟁, 코사투의 역

총회는 코사투의 권한과 역량을 더욱 집중화시킬 것을 결의했다.

량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셉템버위원회는 코사투와 산하조직들이 주체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기보다는 다른 조직들의 주도권에 즉흥적으로 반응해 왔다고 지적했다. 셉템버위원회는 코사투가 노총과 산별노조간의 조직적 관계를 급격하게 바꾸지 않으면서 자체 능력과 기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구조와 활동방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셉템버위원회(September Commission)

1996년 코사투 중앙집행위원회는 '노동조합 미래를 위한' 셉템버위원회를 조직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변화된 정치 · 경제적 조건을 조사하고 코사투가 새로운 변화에 대처해 온 정책과 전략이 타당했는지를 평가하는 권한을 셉템버위원회에 위임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셉템버위원회 위원으로 노동조합 운동가 13명과 ANC 소속 국회의원 2명을 선출했다. 위원회의 명칭은 위원회의 의장으로 코사투 부위원장인 코니 셉템버의 이름에서 딴 것이다. 셉템버위원회는 1년 동안의 활동 결과를 제6차 전국총회에 보고했다. (월간 『노동사회』는 조만간 셉템버위원회 활동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노총과 산별노조간의 관계는 총회의 토론 과정에서 철저하게 논의되었다. 특별한 초점이 산별노조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코사투의 역할 문제에 맞추어졌다. 사무국 보고서는 노총의 규약과 정책이 산하 노조들의 그것보다 우위에 서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규약이 아니라 문제에 맞서려는 정치적 의지의 부족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집행부와 새 지도부는 산하 조직이 코사투의 규약과 정책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결정적으로 개입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점에 대해 대의원들은 원칙상 동의했지만, 코사투가 어떤 상황에서 개입해야 하는지와 개입의 성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자치단체노조(SAMWU)는 "자율성과 집중성의 관계를 분명하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보건노조(NEHAWU)에 따르면 노총과 산별노조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자원과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것이다. 총회는 코사투가 어떤 조건에서 산하 조직의 내부 문제에 개입할 지에 대해 가이드 라인을 수립하는 문제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했다. 총회는 코사투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산별노조의 취약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자원과 권력을 코사투에 집중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것은 노총 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을 분배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단일 조직에 속해야 한다는 새로운 생각이 코사투 안에서 생겨나야 한다"고 총회 결의문은 밝혔다.

총회는 현장 조합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코사투의 지방본부(regions)와 지부(locals)를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 금속노조(NUMSA) 등 큰 노조들은 노조들간의 불균등성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노조예산의 10%를 교육훈련을 위해 떼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사투 지도부는 코사투가 작업장 민주화, 노동자 권리의 방어, 대조합원 서비스를 위해 경영에 참가하는 현장위원들의 능력을 강화

코사투의 지도부. 왼쪽부터 실로와, 바비 그리고 고모모.

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약속했다.

화학노조(CWIU)와 금속노조(NUMSA)는 느슨한 형태의 노동조합총연맹(CONFTU)을 건설하기 위해 전국노동조합협의회(NACTU)와 남아프리카노동조합연맹(FEDUSA)과의 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두 조직은 이것이 "1국 1노총"(One country, One federation)이라는 코사투의 목표를 달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NACTU와 FEDUSA

전국노동조합협의회(NACTU)는 198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노총으로 흑인민족주의를 강조한다. 코사투가 민주주의와 계급투쟁을 중시하는 노동운동을 대표한다면 NACTU는 민족주의를 중시하는 노동운동을 대표한다.

남아프리카노동조합연맹(FEDUSA)은 인종차별 정부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고 권력과 자본과 밀월관계를 맺어온 백인 화이트칼라 중심의 노총이다. FEDUSA는 반공·자유시장·'비정치적' 노동조합주의를 지향한다.(출전: '남아프리카노동운동의 고민' 『노동사회연구 10호』, 1997.1)

그러나 다른 산하 조직들은 이러한 견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운수일반노조(TGWU)는 자신들이 "정략결혼"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길, 즉 정치적 입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코사투의 정책은 1국 1노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조직들이 살아남을 공간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라고 운수일반노조(TGWU)는 말하면서 코사투는 NACTU와 FEDUSA를 해체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CAWU)는 "동지가 되기 위해서

는 공유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총회 참가자들은 코사투가 "우리 이념의 내용과 비전을 더럽히지 않고" 노총들간의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 솔직한 토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총회 결의문은 노총들간의 협력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국경제개발노동위원회(NEDLAC)라는 틀을 뛰어넘어 임금투쟁 같은 운동을 위해 전국 혹은 지역 차원에서 공동활동을 전개할 것을 코사투에 요구했다.

규약개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새로운 구조, 즉 중앙위원회(Central Committee)의 신설에 관한 것이었다. 이 안은 셉템버위원회가 코사투의 새로운 엔진을 만들 필요성에서 제기한 것이다. 중앙위원회는 총회가 개최되는 중간 시기에 코사투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다. 중앙위원회는 총회가 열리는 해를 빼고는 일년에 한 번 열리며, 조합원 4천명당 1명의 중앙위원과 코사투 지도부로 구성된다. 중앙위원의 수는 약 5백명에 이를 것이다. 코사투 산하 전국·지방·지역 단위 실무위원회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월 1회 열린다.

여성할당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총회는 코사투 활동의 중심에 더 많은 여성지도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장이었다. 총회는 여성문제에 대한 조합원의 의식을 높이고 코사투와 가맹조직에 여성지도자의 참여를 확산시키며 노조 조직내의 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코사투 중앙집행위원회에 권고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리고 단체협상의 틀과 관련해서 총회는 코사투로 단체협상을 집중하자는 제안을 채택하지 않고, 새로운 광범위한 부문별 노동조합들이 단체협상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데 합의했다.

사회·경제적 결의

제6차 총회는 사회·경제 문제를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지만, GEAR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보조금 삭감, 민영화, 노동시장의 규제철폐 같은 공세에 저항하기 위해 진보적인 조직들을 동원하는 전략과 코사투가 GEAR를 반대하는 이유를 담았다. 지도부는 코사투가 재건발전강령(RDP)의 목적에 걸맞는 거시경제적 전략들을 합의하기 위해 ANC와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의 동맹정상회담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코사투는 음베키 부통령이 이끄는 공공부문 구조조정팀에 참가할 예정이다. 코사투는 다음 해에 있을 SACP 제10차 전국총회는 물론 11월의 ANC 정책회의와 12월의 ANC 전국회의에 사회경제 문제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국제 활동

총회는 나이지리아와 스와질랜드에서

GEAR에 관한 코사투 선언문

이번 총회는 다음을 재적한다.

1. 정부는 거시경제 전략으로써 GEAR를 채택하고 실행해 왔으며 이미 노동계급은 그 영향을 느끼고 있다.
2. GEAR는 용인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기반해 있다. 그 정책이란 다음과 같다.
2.1 경제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에서의 국가 역할 축소
2.2 기계적인 재정적자 축소 추진
3.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3.1 일자리 상실
3.2 일자리 창출의 희생
3.3 사회 서비스 지출의 감소
3.4 민영화 프로그램의 이데올로기적 추진
3.5 근로기준 저하를 가져오는 노동시장 규제철폐의 도입
3.6 관세인하 같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산업무역정책의 목표
4. 삼자동맹 정상회담은 GEAR가 일방적으로 제기되었다는데 동의했다.
5. GEAR는 재건개발계획에 담긴 정책과 원칙을 일방적으로 저버렸다.

총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코사투는 남아프리카의 사회경제적 변혁에 부응하지 않는 거시경제 전략인 GEAR를 거부하며 ANC정부가 재건개발계획(RDP)의 원칙에 입각한 거시적인 경제발전의 틀을 재확립 할 것을 요구한다.
2. 삼자동맹 수뇌회의의 결의에 따라 삼자동맹은 대안적인 경제전략에 계속 참여해야 한다.
3. 코사투는 우리의 이익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다.
3.1 시민사회의 통합을 위한 제도 수립에 착수한다.
3.1.1 보조금 삭감,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GEAR의 원리들을 폭로하고 반대한다.
3.1.2 RDP 원칙에 근거한 거시경제정책을 개발하여 그것을 사회경제적 이행을 위한 핵심 목표로 삼는다.
3.1.3 고이자율 정책을 거부한다.
3.1.4 "사회평등" (Social Equity) 현장에 제시한 우리의 정책을 지지한다.
3.1.5 공공서비스부문의 구조변동에 대한 코사투의 전망을 추진한다.
3.1.6 일자리를 지킨다.
3.1.7 국민을 위한 예산(a people's budget)을 요구한다.
3.1.8 경제활동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다.
3.1.9 6개월 내에 특별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반(反)GEAR 운동을 구체화하고 이행전략을 효과적으로 보강하도록 대안적인 거시경제전략을 개발한다.
3.1.10 삼자동맹의 다른 파트너들과 계속 함께 하며, 지난 동맹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다음 사항을 추진한다.
- 공동의 사회변혁 프로그램의 형태와 내용
- 정책수립에 대한 접근
- 동맹과 정부와의 관계
- 공공부문 구조변동에 대한 우리의 전망

자행되고 있는 노동운동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총회 참가자들은 쿠바의 위대한 혁명가인 체 게바라(Che Guevara) 사망 30주년을 맞아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쿠바에 대한 경제봉쇄를 철회하고 더 이상 쿠바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총회는 결의문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East Timor) 점령을 비난하면서 동티모르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탄압에 대해 항의하는 메시지를 채택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쿠바노동조합연맹(CTC)의 곤잘레스 국제국장이 참석하여 축하 연설을 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국제자유노동조합총연맹(ICFTU)에 가입할 것을 결의했다.

제6차 전국총회 평가

"지난 9월 19일 금요일 우리는 제6차 전국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총회의 특징은 공개적이고 솔직한 논쟁, 견해 차이를 극복하는 성숙함, 여러 해 동안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조직 문제와 국제 문제에 대한 초점, 삼자동맹이 주도하는 민족민주혁명과 사회주의를 향한 헌신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코사투와 ANC의 관계가 피를 흘리면서 단절되기를 희망했던 사람들은 다음 선거에서 ANC를 지지하기로 한 총회 결과에 실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도전은 어떻게 이번 총회의 결의들을 현실로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제는 우리가 모든 결의문을 책자로 만들어 그것을 조합원들과 대중들에게 알리며 교육자료로 사용할 때만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주의를 향한 헌신을 포기할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도 실망했을 것입니다. 총회는 사회주의가 우리의 미래이며 지금 당장 그것을 건설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가 ANC와 SACP의 지도적 위치에서 퇴각할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도 실망했을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우리나라의 변혁(transformation)을 향한 끊임없는 투쟁에서 ANC가 노동계급에 더욱 우호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M. 쉴로와 코사투 사무총장이 쓴 『The Shopsteward』 97년 10/11월호 머릿말에서) ❖